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7월 11일)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조계종 조직개편안 '8부 3실 18국' 확정

미래특위, 8월 5일 8차 회의
조직개편안 논의 마무리 지어
9월 10일 임시회서 발의키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가 종무기관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무기관은 현 8부 4실 17국에서 8부 3실 18국으로 개편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미래특위는 8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정했다. 회의에는 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확정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은 8부 3실 18국으로 △종무행정부(행정국, 감사국) △기획재정부(기획국, 재정국) △포교부(전법국, 신행국) △교육복지부(교육국, 복지국) △사찰지원부(사찰지원국, 자산국), △문화부(문화정책국, 문화유산국) △사회부(사회협력국, 시민사회국) △호법부(호법국) 등이다. 총무원장 직속으로 사서실과 미디어홍보실, 조계종연구소, 미래본부를 두기로 했다.

먼저 우봉 스님이 전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에 사업과 관련된 사업국이 신설될 수 있는 규정을 남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수익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과 판매, 소매사업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가 맡더라도 부동산 등 자산관리 관련 굵직한 종단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은 "수익사업은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사업국을 두고 거시적인 검토를 통해 수익사업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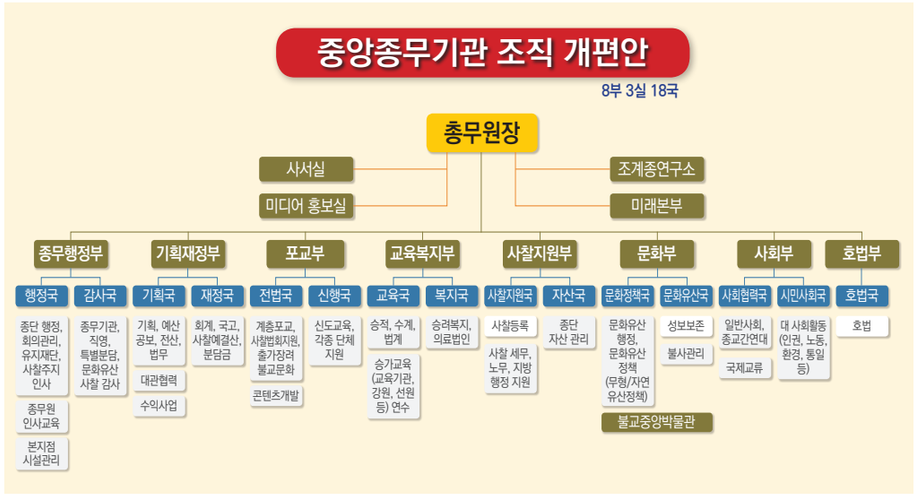
'사서실'을 '의전실'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바꾸지 않기로 했다. 공청회와 회의 등에서 조율됐던 '수행교육국'은 '교육국'으로 '승려복지국'은 '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홍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공보 역할과 미디어 홍보실의 홍보 기능을 통합하자는 의견 대해서는 "별도의 조직 운영이 바림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공보와 미디어 홍보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요즘 세대 트렌드에 맞는 톡톡 튀고 재미있는 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출가장려 업무를 강화하고 종단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이 오갔다. 포교부에 배치된 콘텐츠 개발 업무를 문화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는 포교부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날 미래특위에서 결정된 조직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초 종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9월 10일 개최될 임시종회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미래특위 차원에서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됐으니, 이후 종회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조직개편 시행 이후에도 개선상황이 있다면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8월 8일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서 데뷔공연을 갖고 있는 '비텐스'의 범준 스님(노래), 지안 스님(가야금), 기원 스님(플롯).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월클 BTS 넘을 불교계 'BTENS' 온다

〈비텐스〉

조계종 선보인 스님 포교 그룹
구산 · 광우 스님 등 10명 구성
8월 8일 부산박람회서 데뷔무대
"선명상 대중화에 기여할 것"

불교계의 젊고 힙한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 다재다능한 10명의 스님들이 뭉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계 BTS, '비텐스(BTENS)'를 선보인다. 비텐스는 'BUDDHA TEN SUNIM'의 약자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이다. 부처님 재세 시 탁월한 능력을 재능을 가진 10대 제자를 벤치마킹해, 젊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조계종 소속 스님 10명으로 구성했다.

비텐스에는 구산 스님(총무원 사서국장), 광우 스님(화계사), 고금 스님(광불사), 송산 스님(정혜사), 준한 스님(저스트비 홍대선원)과 도국 스님(청암사), 지안 스님(백천사), 범준 스님(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 기원 스님(정혜사), 반야 스님(영묘암) 등 총 10명의 비구·비구니스님들이 활동한다. 이들 스님들은 각각의 전공을 살려 문화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비텐스는 8월 8일 개막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서 데뷔공연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범준 스님의 노래, 지안 스님의 가야금, 기원 스님의 플롯 연주로 '마음을 바라봐요', '고향의 봄', '자비송' 등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8월 24~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선명상 템플스테이', 9월 28일 '광화문 광장 국제선명상대회'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펼쳐지는 '한국 전통문화와의 만남' 행사에서도 다양한 퍼포먼스를 기획해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비텐스를 이끄는 총무원 사서국장 구산 스님은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와 선명상의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향후 비텐스 활동은 선명상을 다양한 장르로 풀어, 쉽고 힙(Hip)하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들 고민이 있는 곳이면 국내외 방방곡곡을 찾아가 현대의 언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며 야단법석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수습기자

'2024 불교도 대법회' 승보공양 ARS 개통

060-700-7070 한 통화 1만 원

조계종이 9월 28일 불교도 대법회를 앞두고 승보공양을 위한 ARS를 개통했다. '060-700-7070'로 전화하면 한 통화에 1만 원을 후원할 수 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일환으로 준비된 '승보공양법회'는 9월 28일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봉행된다. 조계종은 "불자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을 모아 승보공양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불교의 오랜 전통문화인 승보공양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반목과 질시, 대립과 갈등의 병폐를 극복하고 배려와 존중, 존경과 공경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선언해 더불어 상생하는 공동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불교가 앞장서고자 한다"고 ARS 개통 취지를 밝혔다.

공양의 참된 정신은 6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재시(財施)를,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이에게는 법시(法施)를, 두려움에 차 있는 이에게는 무외시(無畏施)를 베푸는 것이 참된 공양이라는 것이다. 승보공양은 불자들이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준비한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불교도 대법회 승보공양 ARS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조계종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 상생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들의 작은 정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Myogaksa Templestay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mygaktemple@naver.com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낙산묘각사
☎ 02.763.3109